

전남도,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감염병 증가... 권역 완결형 의료 대응 시스템 구축 C형간염 퇴치사업 국고 지원 건의·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등 총력

전남도가 코로나19 대응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질병 예방 및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65세 인구가 지난해 말 현재 23.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도는 감염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전남도는 27일 "2024년 질병관리청 5대 핵심과제인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관리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국가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에 맞춰 '2024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치료병상으로 5개 의료기관 76병상을, 공공격리병상으로 3개 의료원 53병상을 각각 확충하고 2024년 착공할 호남권 권역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완결형 의료 대응 시

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역학조사 전문인력 43명, 예비 방역인력 160명을 양성하고 감염병 관리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 추진해 유사시 상시 대응 인력 확보와 비상 동원체계를 정비한다.

또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1만2000명, 결핵 발생이 높은 경로당 전수검진 9000명, 돌봄시설 중사자 잠복결핵검사 2000명을 실시하고 도내 의료기관 44개소와 연계해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를 적극 추진한다. C형간염은 치료제는 있고 백신은 없어 조기 진단과 치료 연계가 매우 중요한 질병인 만큼, 올해 7개 군, 1만4000명을 검진하고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 건강 보호와 질병 완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성인, 어린이에게 24종 80만건을 추진하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700개소를 지정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의 잠재적 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C형간염 퇴치사업 국고 지원(본인부담 치료비 20억) ▲코로나19 백신 국가필수 예방접종 포함(65세 이상 무료접종)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CRE) 감염증 감소 전략 구축을 위한 시범운영(전국 의료기관 8개소)에 전남도 지정 등을 정부(질병관리청)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정부 사업의 감염병 관리 정책에 접목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상시 비상체계 유지 및 감염병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천연 차꽃 향 맡으며 숙면하세요"

농기원, 차꽃 추출물 이용 발열 수면안대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천연 차꽃 추출물을 이용해 수면장애 개선과 피부트러블 예방 효과에 도움을 주는 발열 수면안대 제품을 개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27일 "발열 수면안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차꽃 추출물을 이용한 항균 효과와 수면장애 개선 효과를 연구한 결과, 차꽃 추출물 100배 희석액에서 55.67% 항균-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차산업연구소는 차꽃 추출물이 함유된 발열 수면안대 개발에 성공했다. 제품 평가조사를 진행해 수면안대 착용 후 취침 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55.6%)되고, 숙면이 증가(66.7%)해 잠잘 때 깨는 횟수가 줄고(61.1%) 다음날 피로감(77.8%)과 무기력감(50%)이 평소보다 줄었다는 결과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차꽃 천연 재료의 향만을 사용해 피부 자극이 적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아로마테라피 효과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최종 전남



100% 천연물로 피부 자극 적고 숙면 증가 등 효과 천연 차(茶)꽃 추출물을 이용해 수면장애 개선과 피부트러블 예방 효과에 도움을 주는 발열 수면안대 제품이 개발됐다. <전남도 제공>

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차꽃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미래농업 대비 농정업무 혁신 전담반 가동

전남도·농기원 협력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도

전남도가 지난 21일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농정업무 협력회의를 열고 스마트농업 등 4개 분야 농정업무 혁신 전담반(TF)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농업인의 관점에서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부터 운영하던 부서 간 업무협의 체계를 기능별로 재분류해 사업의 규모화를 꾀하고 미래농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목표다.

4개 업무혁신 전담반은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과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농정국과 농기원의 과장급을 팀장으로 한 스마트농업팀, 청년농육성팀, 농식품가공·유통팀, 총괄팀으

로 구성했다. 스마트팜 분야의 경우 중복이나 사무조정이 필요한 업무는 통합해 규모화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무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과 실증이 완료된 연구사업을 농가에 보급·확산하는 등 사업화할 때는 사전에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사업 규모화가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해 국가정책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미래농업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운영에 전남·작물환경을 고려한 연구사업화 사전 준비 ▲농촌 재배단지 현장기술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 ▲3·4월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에 방 및 대응 공동 노력 ▲전남 양파 브랜드화를 위한 '전남양파민관협체'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기농 생태마을' 인지도 높인다

전남도, 인증 마크 개발해 상표 출원

전남도가 유기농 생태마을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지로서 인지도 향상 및 홍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유기농 생태마을 심볼 마크(마을 인증)와 브랜드 마크(생산품 인증)를 개발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4차례의 보고회와 네이밍·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심볼 마크와 브랜드 마크를 개발해 안정적 브랜드 디자인 사용을 위한 상표 출원까지 마쳤다. 심볼마크는 유기농 생태마을 가치를 '유기농의 이로운, 생태환경의 생기, 마을의

맛'이 우수한 자연환경 청정마을로 심볼화 했다. 브랜드 마크는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담아 천혜의 자연요소가 어울리는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생산품을 시각화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유기농 생태마을과 생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명함, 봉투, 깃발, 현수막, 탐자, 머그컵, 소핑백, 엠블럼, 포장박스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의 '이로운, 생기, 맛'과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최대한 홍보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가공·판매하는 마을, 체험활동을 통한 힐링의 공간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유기농마을의 성공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57개 마을을 지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삼 수출 전략품목 육성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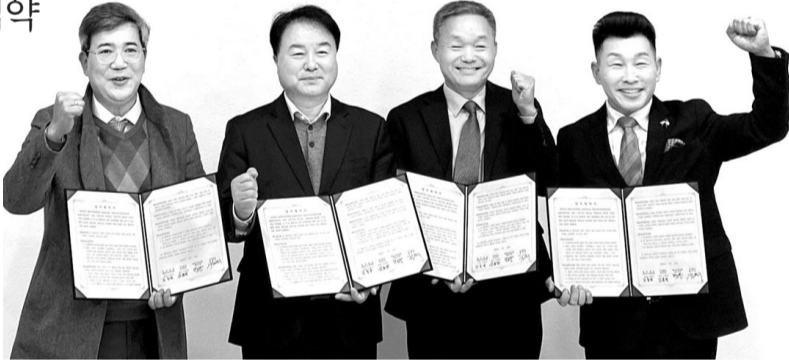
조인트리·해삼가공유통조합·블루존과 양식 활성화 협약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해삼을 김, 전복에 이은 제3의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인트리, 해삼가공유통조합, 블루존과 양식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0년간 축적해온 양식기술을 지원하고 ㈜조인트리는 양식장 시설 및 해삼양식 생산성 확인 데이터를 공유한다. 해삼가공유통조합은 해삼양식장을 구축·운영하고, 블루존은 해삼가공 및 대외수출, 국내 유통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그동안 축적된 해삼양식 분야 정보 교류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3년 해삼산업 연구센터를 준공하고, 2015~2018년 트랙형 해삼축적식 양식 실증연구를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해남에 에너지자립형 해삼 축적식 시험어장을 공동 구축해 2022년 12월 해삼종자 3g 크기를 인식, 2023년 11월 평균 중량 200g까지 별도의 먹이공급 없이 성장시켰다. 생산소득은 1000㎡에서

3000만원으로 새로운 소득품목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어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우수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출연 플레이어 모집

와이그림 '애코와 친구들...' 29일까지... 올 하반기 EBS 방송 예정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2023년 전남 우수콘텐츠 공모전 수상기업인 ㈜와이그림이 '애코와 친구들 : 수리수리 메타월드 대모험'에 아바타로 출연할 플레이어를 모집한다.

'애코와 친구들 : 수리수리 메타월드 대모험'은 EBS, 픽토스튜디오, 와이그림이 공동 제작해 메타버스 상에서 동물 캐릭터가 좌충우돌 벌이는 코믹·모험·교육을 담은 체험 기반의 게이미피케이션 애니메이션이다.

이번 오디션은 유저 참여형 메타 애니메이션의 특색을 살려 애니메이션 내 캐릭터 아바타로 출연하여 게임에 참가할 플레이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은 오는 29일까지로 참가자격은 만 19세 이상,

게임이나 스트리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게임 플레이 영상을 개인 네이버 치지직 채널에 게시한 후 구글폼을 통해 해당 웹주소(URL)와 개인정보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플레이어는 4개월 동안 26개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해당 플레이 영상은 하반기 EBS에 방영될 예정이다. 또 최종 선발된 우수 플레이어 2명에게는 총 2000만원 상당의 출연료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인웅 진흥원장은 "지역의 우수콘텐츠를 발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품화와 해외진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